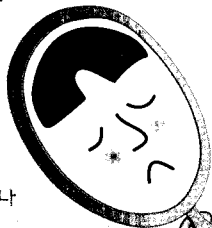




## 궁금해요... 꼭 답변해주세요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전 미혼여성입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랑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건 후회하진 않지만 나중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제가 처녀가 아닌걸 알고 실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처녀막 재생수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면 다시 처음 관계하는 것처럼 피가 나오나요? 그리고 처음 관계하는 느낌이 나나요? 정말 그 남자를 좋아해서 한거고 후회하진 않지만 저랑 결혼할 남자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고 혹시라도 그걸로 인해 두고두고 약점을 잡히는 것이 싫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처녀막 재생수술은 처녀막이 주변에 남아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랍니다. 처녀막의 흔적이 전혀 없으면 수술 자체가 어렵겠죠.

앞으로 결혼할 미래의 남편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 하려는 마음 씩씩이가 여성이란 입장 때문이란 것이 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 씩씩하군요.

사랑하는 사람과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눴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속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기 주장에 대해 위배되는 생각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의 결혼에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포장을 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안한 감정은 어떻게 하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기 편하진 않을 거 같아요.

의미를 재해석해 보면 결혼 전 즐긴 것은 즐기고 결혼할 때 처녀처럼 위장하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엉뚱한 해석을 해봤습니다.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192222**

**사** 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는 매우 다르죠. 정말 한 몸이 됐다는 것과 나눴다는 것으로 육체적 만족보다 정신적 만족을 더 크게 하죠. 어떤 이유로 앞으로 결혼 까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과의 한 몸이 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듯 싶군요. 그런 반면 마음 한편에선 갈등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갈등하는 이유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찌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처녀막 재생수술을 하고 싶다니 말이죠.